

▶ 다음 질문으로 서로의 마음문을 열어보세요.

Q. 한 주간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예수 따라가며(찬 449장) / 삶의 예배 /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 주님 말씀하시면

▶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 모임기도 (셀리더 또는 맡은 사람이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한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어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 (히브리서 13장 1-6절 | 표준새번역)

▶ 금주 말씀 되새기기 /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1. 복음의 실천

히브리서 13장은 복음의 실천편으로, 앞서 1-12장에서 설명한 복음의 핵심 교리를 바탕으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신앙은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가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뿌리와 같고, 실천은 열매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2. 형제를 계속 사랑하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이며, 이는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 간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질 때 포기하지 않고, 용서와 이해를 통해 회복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3. 환대하라

히브리서 13장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손님 대접’은 헬라어로 ‘필로크세니아’이며, 이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소외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낯선 사람에게 무관심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정신을 따라 이웃을 환대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4.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관계이며, 부부 간의 신뢰와 사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결혼과 가정의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신앙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복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낯선 이를 환대하며,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을 실천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아래의 질문으로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가지세요!

1.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하루에 가장 많이 말하고 싶은 ‘복음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2. 교회에서 또는 주변에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3.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지만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보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결단해보세요.

▶ 나누었던 내용과 더불어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사랑과 환대의 실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며,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낯선 이들,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지금은 ‘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면 좋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셀 리더가 드러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